

21세기를 대비한 의학도서관의 과제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윤 영 대

I. 미래도서관에 관한 이론의 개관

현대는 정보화 사회라 칭한다. 이에 걸맞게 정보는 용어가 도처에서 범람하고 있다. 도서관학이 문헌정보학으로 변한 것도 시대 상황에 무관하지 않으며 정보과학, 정보처리, 정보관리, 정보통신 등과 같은 새로운 연구분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정보통신 및 전자정보매체의 발달은 계속되고 그로 인하여 도서관제도 변화의 물결속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도서관을 전망하여 만들어진 신조어들도 무수히 많다.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가상 도서관(virtual library), 가상현실 도서관(virtual reality library), 종이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 도서없는 도서관(bookless library), 벽이 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walls), 사이버 스페이스(cyberspace) 등이 대표적인 미래도서관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이러한 표현은 인쇄매체는 더 이상 도서관에 존재치 않고 모든 장서는 전자매체로 변환되며 시설로서의 도서관은 필요가 없고 컴퓨터가 이를 대신한다. 또한 단위 도서관들은 의미가 없어지고 지역간, 국가간, 범세계적인 도서관만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사서라는 직종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반박하는 이론들도 발표되고 있으나 환상적인 미래도서관 관에 비하여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의 대표적인 논문은 김정근·이용재(1996)의 것이 있다.

앞으로 이들 미래도서관의 전망들이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미래 도서관 이론의 비판 및 전망

서지 검색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매체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재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초록·색인지들은 모두 데이터베이스로도 병행하여 제작하여 온라인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개 도서관들도 온라인 목록으로 전환하고 카드목록 등을 폐기해가고 있다. 따라서 모든 도서관이 전자화된다면 예산 때문이라도 인쇄물을 구독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Condit과 Lepkowski (1992)는 CD-ROM을 갖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72%가 인쇄물 구독을 중단하였음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서지검색에 있어 기계검색과 수동검색의 장단점이 있지만 예산의 압박으로 도서관에서 양쪽을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첨가하여 통독 자료가 아니고 필요한 사항만을 참조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예를 들어 수치 자료(data complications), 백과사전 및 사전류, 통계집, 명감류 등과 같은 참고자료들을 전자화한 자료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보존 장소의 절약과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한 점 때문이다.

그러나 서지가 아니고 참고자료가 아닌 원문 자체를 모두 전자화 한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독자료인 단행본이나 잡지 기사를 모두 전자화한다면 이것이 바로 디지털 도서관이 이룩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 문제이다. 인쇄된 잡지를 구입하여

전자화하는 것도 불법 복제가 되는 것이며 일단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은 얼마든지 쉽게 불법 복제가 가능할 것이다. 잡지의 발행주체에서 전자잡지로 제작하는 문제도 실험적인 것으로 성공적이라 말할 수 없다.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인쇄매체 이용의 편리성과 관습도 무시할 수 없다. 인쇄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전자화한 문헌을 모니터상에서 몇 시간씩 독서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에 다가가 복사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클 것이다. 이는 시청각 자료가 공간절약이나 영구 보존에 유리하지만 아무데서나 수시로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과 같은 것이다.

셋째, 잡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이유 중 하나를 자기의 연구결과를 학계로부터 비평받고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전자화한 자료는 서지검색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전에는 이용이 안될 것이고 인쇄물처럼 수시의 스캐닝 기능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인쇄자료를 병행하여 마이크로형 문헌이 출현한 것은 몇십년 전의 일이며 당시는 획기적인 것으로 주목되었지만 현재에는 Microfiche 잡지는 거의 잊혀져 가는 존재이며 Chemical Abstracts와 같은 방대한 초록지의 기간호들을 마이크로 형태로 구입하는 정도이다. 이들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종이 인쇄물을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전자자료는 마이크로형 자료와 달리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여 원거리 통신에 의한 접근 등 정보공유의 기능이 뛰어난 점이 있지만 앞으로도 인쇄매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장래에도 도서관의 장서에 전자매체가 포함이 되고 그 비중이 점차 높아가겠고 컴퓨터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 접근이 좀 더 편리해지고 많아지겠지만 도서관의 기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방법론과 전통적인 방법론이 공존할 것으로 생각된다.

Robert B. Mehnert와 Joseph Lieter (1988)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의 장래를 전망하면서 서지검색 시스템과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검색과 동시에 원문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중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원문 데이터베이스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서지 검색 시스템과 소장정보(종합목록) 시스템이 통합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도서관이 없어지고 사서가 필요없게 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직접 검색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서직이 확립되기 전에 과학자들이 자기 자신의 업무로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관리하던 시대로 회귀하는 결과가 된다.

정보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관리한다면 그만큼 연구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다. 현대는 계속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데 19세기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퇴보를 의미한다. 컴퓨터 검색 프로그램도 user-friendly system이 개발이 되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어도 이용자들은 문헌전문가인 사서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여러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학 서지는 앞으로 계속 발달하고, 심화되는 의학 정보관리자로서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정보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좀 더 전문성을 함양해야겠다.

윤희윤(1997)은 앞으로 가장 치중해야 할 부분은 전문인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전문분야의 주제지식, 정보처리기술, 신정보매체)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앞으로는 NLM의 CATLINE, AVLINE, SERLINE 등에 온라인 접근이 일반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각 도서관의 분류목록업무는 필요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사서들은 직접 봉사업무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가상적인 미래 도서관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현재를 소홀해서는 미래도 없다. 현재 미국에서 의학도서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봉사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실시해 본 적이 없다. 미래를 전망하는 본 주제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실시를 권하는 의미에서 다음장에 2가지의 봉사방법과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III. Clinical Medical

Librarianship(임상의학사서제도)와 LATCH Program(Literature Attached to the Chart)

1. Clinical Medical Librarianship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는 의학도서관협회에서 수여하는 의학사서자격제도가 독립되어 있으며 의학사서 중에서도 임상의학정보를 전문으로 봉사하는 사서를 임상의학사서라 한다.

이를 간단히 정의하면 “회진하는 의사와 의학도를 수행하고 도서관에 돌아와 해당 질병들에 관한 적합문헌들을 검색하여 제공하는 의학문헌전문가(Medical Literature Specialist)”이다. 회진뿐 아니라 임상사들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여 현장에서 정보요구를 수합하여 도서관에 돌아와 해당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며 다음에 소개할 LATCH Program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봉사를 실시한다.

N.P. Grose와 G.G. Hanningan(1982)은 이 제도로 환자진료와 의사 및 수련의들의 시간절약이 컸으며 광범위한 학술잡지에 접근성이 커지고 동료간에 정보의 공유화 등을 촉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 LATCH Program

이 봉사 방법은 의무기록카드 양식에 LATCH 신청서 양식을 미리 첨부하여 두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면서 의문나는 주제나 그 질병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보낸다. 도서관에서는 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여 서지목록과 때로는 중요한 논문원문을 복사하여 그 환자의 의무기록카드에 부착시켜 주어 동료의사들이 그 환자진료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Steven L. Sowell(1978)의 보고로는 71.8%가 이 봉사가 “매우 유용하다”로 응답하였고 25.2%가 “유용하다”로 응답하여 97%의 절대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봉사이후 38%의 학술잡지 구독이 증가하였고 문헌검색의뢰가 417%나 증가하였다. 이외에 직원들이 전문적 숙련에 큰 발전이 있었고 직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의 도입을 뒤로하고 미래의 첨단이론에 당황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봉사방법도 찾고 개발하여 그날 그날의 좀 더 성공적인 봉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좀더 과학적인 도서관 운영으로 낭비 요소를 줄이면서 미래를 대비해야겠다.

위에 소개한 봉사가 PC에 의하여 의사들이 직접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에 과연 지금도 필요하겠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문헌정보에 관한 한 전문가로서 사서직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기 봉사에 대하여 현재도 그 봉사를 필요로 하는가를 설문조사하여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에 발표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전히 그 봉사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IV. 결 론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와 전자 정보매체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도서관에서 무관심할 수는 없으나 미래도서관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도서관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필요한 정보를 필사하거나 타자하여 복제하는 시대에 복사기가 발명이 되어 도서관의 봉사에 커다란 발전을 주었고, 인쇄 매체에만 익숙해 있던 도서관장서에 시청각자료가 개발이 되어 정보매체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봉사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후 컴퓨터가 개발이 되어 수작업에 의지하던 정보관리가 자동화되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창조된 새로운 방법론을 도서관에서 도입하여 활용한 것으로 방법론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 뿐 도서관 자체의 목적과 기능을 대체한 적은 없다. 전자 매체도 앞으로 그 비중이 더욱 커질지는 모르나 도서관 장서에 추가되는 하나의 종류일 뿐이라 생각된다.

통신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Internet을 이용하여 MEDLINE을 직접 이용하면 전술한 목록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DOCLINE을 이용한 원문제공도 받을 수 있고 40여 가지가 넘는 NLM의 database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등 유리한 점이 많음에도 아직도 과학적인 검토도 없이 고가인 MEDLINE CD-ROM을 도입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라 할 수 없

다. 본인도 MEDLINE과 CD-ROM MEDLINE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MEDLINE의 이용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 도서관에서 좀 더 시급한 것은 현재에 적합한 봉사를 개발하고 좀 더 과학적인 도서관 경영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는 심해지는 예산 압박을 해결하는 길도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론이 개발되면 기존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 또는 새로운 방법들 간에 과학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이 과학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정근, 이용재(1996): 참을 수 없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가벼움, 도협월보 37(4): 4~29.
- 2) 윤희운(1987): 대학도서관의 미래상, 디지털 도서관 통권5권 P.35.
- 3) Condic, K. and F(1995): Lepkowski, Survey on Attitudes Toward CD-ROM Indexes, Preliminary results distributed to participating institutions, 26 May, 1992. Cited in Computer-Repated Technologies in Library Operation, Keith C, Wright, Gower.
- 4) Robert B(1988): Mehnort and Joseph Lieter, Handbook of Medical Library Practice, 4th ed. Vol. 3, P. 173.
- 5) Steven L(1978): Sowell, LATCH at the Washington Hospital Center, 1967~75,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66(2): 218~222, 1978.